추석들 잘 쇠셨나요 —571돌 한글날을 보내며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1년 중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바로 민족의 대명절인 설과 추석 무렵이 아닐까 싶다.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다. 젓가락과 달리 숟가락엔 왜 'ㄷ' 받침이 들어가는 걸까? 의문은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풀렸다.

젓가락은 '저'와 '가락'이 합쳐진 단어이니 중간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의 '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지시하는 말인 '수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저'에서 '수' 역시 '가락'과 합쳐져 '숫가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숟가락을 의미하는 '수'의 옛말이 '술'이라는 것이다. 좀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술'은 현대 우리말에도 남아 있다. 바로 '밥을 한 술 뜨다' 같은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술'의 'ㄹ'이 'ㄷ'이 되어 숟가락이 된 이유는 뭘까? 국어에는 원래 'ㄹ'이었던 것이 'ㄷ'으로 바뀐 단어가 제법 많다. 한데 맞춤법에서 원래 'ㄹ' 소리였던 것은 'ㄷ'으로 적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반짇고리(바느질+고리), 사흗날(사흘+날), 섣달(설+달) 같은 단어가 바로 그러한 예다.

잦은 숟가락질로 그만큼 몸이 불어났을지도 모를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연휴 기간, 곳곳에서 추석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사람더러 한가위가 되라니

하지만 '주민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이런 식의 인사말을 보면서 꽤나 신경이 거슬렸다. 어법에 맞지 않아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당신은 즐거운 한가위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사람이 어찌 한가위가 될 수 있나? 비문(非文))으로 치자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란 표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수의 언중들이 쓰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말글의 근간에 어긋난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럼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같은 문장은 어떻게 바꿔야 어색하지 않을까. 우선 무난한 것은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로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로 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그나저나 '이번 추석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다. 혹시 앞의 이 문장에서 '추석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탓일지도 모른다. 셀 수 없는 명사에 복수를 의미하는 '들'이 붙었으니 어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말 '들'은 주어가 복수이면 아무 데나 붙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존재다. 명사(이름씨)에도 붙고 동사(움직씨)에도 붙고 심지어 부사(어찌씨)에도 붙는다. 그러니 "성묘를 마치고 '다들' 떠나갔구나"라 해도 되고 "다 '떠나들' 갔구나" 해도 괜찮다. 추석에 전을 부치던 며느리가 "남정네들이 텔레비전만 '보고들' 있다가 다 해놓으면 '무섭게들' 처먹기만 한다"라고 했다면 이 또한 전혀 흠 잡을 데 없는 문장이다.

이번 연휴 막바지엔 571돌 한글날이 들어 있었다. 오늘 쓰는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쓰는 우리말 우리글'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데, 571돌이나 571회나 같은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돌'은 어떤 일이 있은 뒤 지난 햇수를 세는 말이요 '회'(回)는 되풀이한 수를 차례로 세는 말이다. 따라서 571돌 한글날은 571주년 과 같고 횟수로 바꿔 말하면 572회 혹은 572번째 한글날이 된다.(훈민정음 반포 연도가 1446년이니 잘 계산해 보시기를.)

한글날을 핑계 삼아 너무 아는 체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주위에서 '아는 체하다'와 '알은체하다'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가령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갔다가 골목 어귀에서 먼 친척을 만나 반갑게 아는 체했다"라는 문장에 나오는 '아는 체했다'는 '알은체했다'의 잘못이다.

원칙 어기는 예외 너무 많다

이들 단어의 띄어쓰기도 자꾸 헷갈리는 대목이다.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따르면 보조 용언 '척하다'와 '체하다'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아는 척하다' '모르는 체하다'와 같이 본용언과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며 붙여 적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 '알은척하다' '알은체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적는다.

참, 띄어쓰기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나의 경우, 내 글도 내 글이지만 남의 글을 교정하는 일까지 하느라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결코 과장이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들추곤 한다. 참고로 '띄어쓰기'는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 있어 붙여 써야 한다.

'지난여름'도 사전에 버젓이 올라 있는 단어이니 띄어 쓰면 안 된다. 올봄, 올여름, 올가을, 올겨울, 지난봄, 지난여름, 지난가을, 지난겨울 등도 모두 한 단어로 굳어졌다며 붙여 쓰라 한다. 그러나 나는 굳어진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리는 국립국어원이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 사전을 찾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문법이라는 게 말과 글이 있고 나서 생긴 것이지만 맞춤법도 하나의 원칙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니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요즘엔 그 원칙이 너무 쉽게 흔들리니 문제라는 생각이다. '자장면'을 '짜장면'으로 바꾸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더니 말이다.

원칙을 벗어나 예외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일반 국민의 국어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기 마련이며 또한 '우리말 우리글은 너무 어렵다'는 인식을 줄 우려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좀 더 진중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쓴다'는 원칙을 어겨 가면서 '지난여름'을 굳이 붙여 써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량해협서 임진왜란 무기·도자기 대거 발견

문화재청 수중발굴성과 공개

돌포탄 등 수군 상황 고스란히

청자·백자·토기 등 유물도

12일 진도군 군내면과 해남군 문내면 사이 명량해협에 정박한 누리안호에서 수중 발굴된 도자기들. 〈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에서 도자기, 토기, 돌포탄(석환·石丸), 노기(弩機·방아쇠 부분) 등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 시작한 명량해협 수중발굴조사의 성과를 12일 현장에서 공개했다.

명량해협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발굴 유물 수는 모두 910여 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진행된 발굴에서는 돌을 둥글게 갈아 만든 조란탄(鳥卵彈)이 최초로 나왔다.

조란탄은 새알처럼 생겨서 붙여졌는데, 조선수군이 화약을 잰 지자총통으로 300발 가량을 한꺼번에 쐈던 둥근 공 모양 탄환이다. 조사 지점은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물리친 울돌목에서 약 4km 떨어진 곳이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조란탄을 쐈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조란탄 외에 다른 유물도 다수 발굴됐다. 돌포탄(석환·石丸), 현대 무기에 비유하면 기관총 방아쇠 역할을 한 노기 등은 당시의 여력이 없던 수군의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연구소는 발굴된 돌탄환에 대해 "철탄을 만들 여력조차 없었던 조선수군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쟁유물을 포함해 올해 발굴에서 나온 유물 중에는 고려청자가 많았다. 아름다운 비취색과 화려한 문양이 특징인 청자 잔과 유병(油甁·기름을 담는 병)이 나왔다. 생산 시기는 12~13세기가 대부분이고 강진에서 만든 청자가 많았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 최첨단 탐사 장비인 수중초음파카메라와 스캐닝소나를 도입해 다수의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내달 초 서울서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을 위해 내달 초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국 직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은 6월 말 미국 워싱턴 D.C와 지난달 뉴욕에 이어 3번째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올려놓고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협상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8~15일 7박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남아를 무대로 각종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체부,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수정 중 "전당·7대 문화권 사업 구체적 포함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기회에 7대 문화권 사업 등에 관한 예산 지원과 실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종합계획에 담을 핵심사업과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강구를 위해 문체부 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추진단'과 광주시·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형태의 TF팀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르면 11월 초안이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안은 내년 5월 대통령보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향후 5년의 중장기계획이 실행된다.

송기석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이 2년 늦어진데다, 예산집행률도 23.6%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면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마련되는 중장기 계획인 만큼 전당 운영 활성화 및 7대 문화권 사업 재편 등 연계사업의 실질적·안정적 추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대 문화권은 도시 전체를 7대 권역으로 특화해 문화거점을 설정, 문화가 도시 곳곳에서 흐르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광주시가 추진중인 사업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팟섬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번지, 무인도
임 14,010평/보전관리, 목포에서 50분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투자가치 최고
매14억, 현금2억+기타부동산과 교환가
주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